

확산될 내각제 저지 열풍

'90년 하반기 정세와 학생운동의 향방

I. 하반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

92-93년의 권력 재편국면에서 대각들의 수준과 양상은 90-91년의 개헌을 둘러싼 투쟁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는 개헌을 둘러싼 투쟁의 초입부에 해당하는 시기이자 92-93년 대각들의 수준과 양상을 일차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청년학생들에게는 그 어느 상황보다도 책임있는 선택과 결단에 기초한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II. 장기집권음모의 서막 내각제 개헌 저지투쟁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을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물론 올 하반기부터 미-노정권의 내각제 개헌 음모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내각제 개헌을 위한 현 정권의 사전적 작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민민은 이러한 현 정권의 음모를 때 사안사안마다 폭로하고 저지시켜 내각제 저지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임무가 부과되고 있다. 국민대중은 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개헌이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음모에 철저히 이용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면한 내각제 개헌음모도 이와 다를바가 없음을 체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선제가 국민대중 스스로의 투쟁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당면한 내각제 개헌음모는 국민대중의 귀중한 투쟁의 성과물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음모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중은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내각제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각제개헌이 장기집권을 위해 미-노정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장벽이면서도 가장 약한 고리로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내각제개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동안 현정권이 꾸민 추진책은 북방정책이 당면해서 교착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한-소 수뇌회담이후 기대를 모았던 수교문제도 소련의 지연으로 불투명해지고 있으며(수교가 되더라도 소련측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중관계정상화도 별척이 없으며 남북 정상회담은 확실한 상태이다. 박정희가 7.4남북공동성명을 이용해 유신체제를 수립한 것과 같이 자신들도 북방정책

의 성과를 토대로 내각제 개헌 추진을 꿈꾼다고 지적되고 있는 미-노정권으로서는 북방정책의 교착은 실로 가슴아픈 일일 것이다. 또한 국민적 저항이 일지 않더라도 내각제 개헌의 목적인 내지는 소극적 저항만 보장된다면 내각제 개헌을 한번 해 볼만 하겠지만 이것도 그들의 뜻대로 안되고

는데 그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지도해심각부에 대한 탄압과 근거지 대중운동역량의 파괴, 그리고 민민운동과 중산층의 분리에 그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구속수감된 애국운동가들의 숫자가 1천명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하루 평균 6명꼴, 5공의 4배) 87년 이후 건

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연대, 그리고 우르라이리온드에 반대해 진출하고 있는 농민운동과의 조직적연대를 보다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미-노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모아질 것이다. 따라서 민민운동은 국민대중의 생활상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내 투쟁을 조직화, 해내야 하겠다.

IV. 허구적 북방정책과 두개의 한국정체 저지투쟁의 의미

올 하반기에도 역시 미-노정권

이 보여져왔던 상충우주의 선택적 운동양식을 지양하고 하부단위의 자주적인 통일운동전개로의 전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8·15통일운동을 거치면서 그 운동의 원칙과 중심을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혼란과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상충협상이 갖는 한계는 이번 8·15통일과정에서 확연히 들어났다. 교류의 주체는 남북한 민중임을 다시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민중들간의 교류는 철저히 자주적이어야 한다. 교류운동에서 정부당국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으로 국한시켜

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노정권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교류는 통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엄연한 통일운동의 원칙이다. 기능주의적, 현상유지적 교류운동은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할 뿐 통일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농민들의 종자교류도, 종교인의 상호접촉도 반드시 통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V. 나오는 글

90년 하반기 정세의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교착국면의 지속이지만 민자당의 장기집권토대 마련과 실행이나, 민주연합전선 구축 강화와 3대투쟁의 대중적 전진으로 대중운동을 통해 권력재편기

를 승리로 귀결지를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92년까지의 시기에서야- 타간의 정세주도권 장악을 놓고 총체적 역량의 격돌로 계속될 것이다. 학생운동은 정치적으로 민자당의 통치구도를 폭로하고, 민족민주진영의 대중장악력, 지도력강화를 기본으로 조국통일운동의 확고한 수행으로 운동의 이념성, 통일운동의 대중성을 확보,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기본대중조직의 혁신강화와 국민연합의 실천적 확보를 통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일수권정당의 건설을 통해 민주정부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에 큰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내야 하겠다.

(특집부)

반통일성 폭로 위한 다각적 교류운동 전개될 듯

민민은 이념통일로 운동역량 강화 시급

수권세력 위상 갖는 연합전선 구축해야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는 실상가상으로 민자당 내부에서도 뜻이 모아지지 않으나 미-노정권으로서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셈이다. 이렇듯 내각제 개헌저지 투쟁은 현정권의 약한고리를 치는 투쟁으로 위치지키는 것이다.

III. 민민은 탄압분쇄와 민중 생존권 쟁취투쟁의 의미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현정권의 탄압은 민민운동이 대의상의 성장과 정치적 진출을 막고 나아가서는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놓아 장기집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려

설된 상당수의 민주노조가 와해되거나 그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89년에 들어오면서 부패본격화된 보수적인 대립논리와 그에 입각한 중산층 분리공작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도 핵심간부를 보호하고, 하부토대의 강화를 토대로 근거지대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보-혁논리를 타파하고, 중산층을 견인하기 위한 투쟁을 일보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에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치솟는 물가와 특히 주택문제와 심화, 자본과 정권층의 임금투쟁과 생존권쟁취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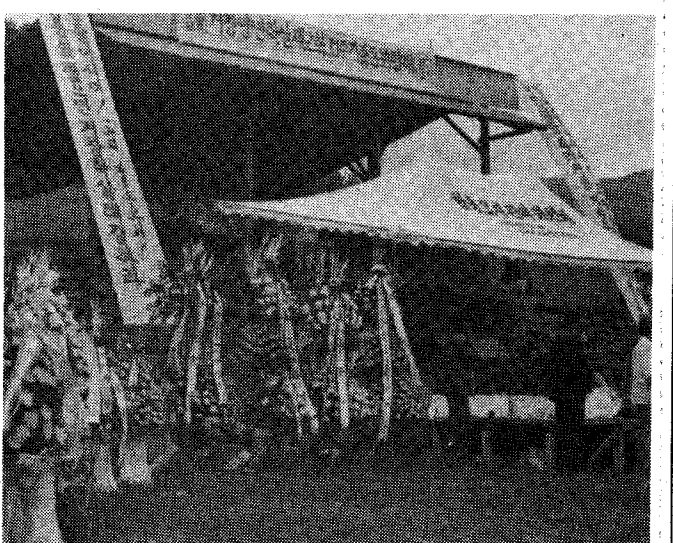
은 북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4일 개최된 고위급회담에 이어 개최된 10월16일 평양 남북 고위급회담, 22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추석을 전후로한 기간적 민족대교류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무마하는 한편 두개의 한국정체를 끈질기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운동은 이미 일정에 올라가 진행되고 있는 과단위 대규모 방북을 중심으로 미-노정권의 허구적, 반통일적 북방정책을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규모 파교류가 갖는 의의는 그간의 통일운동

◇ 기동취재... 제2회 '거창양민학살 합동 추모제를 다녀와서

외면당한 '박산골'의恨 풀이

박산골 7백19명의 선량한 목숨을 앗아간 '우매한' 국군의 총포소리가 39년이 지난 지금에도 귓가에 메아리치는 듯. 거창읍에서 1시간여 걸침산중을 거쳐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뒷산.



◇지난16일 열린 제2회 '거창양민학살 39주기 합동 추모제'

1951년 2월11일, 대량학살의 여흔이 서린 신원국립학교 뒷덕엔 덧없이 세월이 흐른 탓인지 성성한 나무사이를 뚫고 바람이 비쳐들고 다소 어설픈(?) 거창양민학살 39주기 합동 추모제가 지난 16일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위령추진위원회'에 의해 거행됐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김계현 거창군수, 유가족들과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추모제는 불꽃없는 묘역만큼이나 단촐했다. 모국회의원, 지방관공서장들의 분향행사도 화환만이 영혼을 달래는 가운데 열린 추모제는 당시의

다. 이와 함께 2백25명의 어린 아이무덤은 표시도 없이 묻혀있어 묘지 전체가 평범한 가족묘지를 연상케 한다. 이것마저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전쟁이 끝

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묘소에 봉분을 파헤치고 위령비를 마모시키고 땅속 깊이 파묻어버렸다는 데서 유족들은 분노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정권은

군사정권 반공이념 유지 위해 사건 축소 진상규명 통한 역사적 재평가 절실

기억을 회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손상됐고, 7백19명의 넋들을 위한 몇마디의 위로와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읽히지도 않은채 종이조각으로 찢어졌다. 신원국립학교에서 바로 5미터도 채 안되는 묘역에는 지난 88년 2월, 27년만에 다시 캐내진 위령비가 마모된 상태로 비문의 복구도, 제자리에 세워지지도 못한채 누워있다. 위령비의 양쪽으로 자동처럼 누워있는 무덤은 '남자묘'로 여겨지므로 '남자'를 그 주인을 나타낼때 명사에 붙여놓는 남자 1백명, 여자 1백 83명의 화장된 뱃가루가 섞여 있을 것이

난 3년뒤 박산골에서 꺼냈을때 형체를 알 수 없는 뒤편이만 있었다고 한다. "학살이 세상에 공개되자 당시 애타게 부르쳐 추모 산속 깊숙한 흉터에 묻혔던 것을 마을주민들이 서른가마를 끌고와서"라고 전하는 유족인 정영주씨는 "발길로 누명씩 씌워 죽인 것을 가리기 위해 그걸 다시 파서 묻었어. 학살당한 영혼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라며 울분섞인 분노를 삼킨다. 또한 5-16 군사정변이후 박정권이 위령비문의 내용중 일부 미려한 국군의 손에 의해 죄 없는 양민들이 집단살육을 당했음이라는 내용이 국군의 위신

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묘소에 봉분을 파헤치고 위령비를 마모시키고 땅속 깊이 파묻어버렸다는 데서 유족들은 분노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정권은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간부들을 구속시켰다고 한다. 이토록 주민중 한 할머니는 "박정권에 탄압에 의해 신원면에서 살지 못하고 함양, 산청 등으로 이사를 간 가구가 많았다."고 말해 유족들을 분산시켜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던 당시 정권의 의도를 폭로했다. 역대정권에 의해 왜곡·축소가 계속되던 거창양민학살이 보상은 커녕 아직도 사건의 명확한 진상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진정한 위령은 역사속에 이 사건이 올바르게 평가되길 때 가능할 것이다. (전만환 기자)



최상호
(본보 기획·학술부장)

이론과 실천 겸비로 찾아지는 휴머니즘의 의미

휴머니즘에는 고대의 휴머니즘, 근대의 휴머니즘, 서양의 휴머니즘, 동양의 휴머니즘 등 여러가지의 형이 있으나, 그에 공통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의 교양, 인간의 창조력을 존중하고 여기고 이것을 보호하여, 보다 풍부한 것으로 높이려고 하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억압하고 파멸시키는 자에 대해서 적을 수 없는 의분을 느끼고 그것과의 투쟁을 불사하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현재에 긴급한 것으로는 경제제도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확증되는 경제 분석을 행하는 것이고, 충분히 예언능력을 가진 과학적, 역사적 인 사회과학을 건설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의 인식에 바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일일지 모르다.

이정우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고 개인에 있어서 위험이 많다는 것은 더 말할 실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다라든가 나이가 많아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청년 시대의 꿈은 휴머니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인간의 참다운 존재 방식

정신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존재가 정의, 평등, 행복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적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라는 그 본질에 입각하여 인간을 대량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대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서 발을 멈추고, 그 이상 전진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대결을 위해서 사상과 행동의 휴머니즘까지 상충하여야만 한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이론분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윤리적 목적이나 고찰 또는 집필하고 토론하는 것을 넘어, 보다 실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용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론분야에서 그러려는 경향은 도덕적으로 말해서 사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극작가인 알프레드 비시는 '위대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년시대의 사상을 나이가 들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글씨 ②광산 고씨들

전남 광산지방에서 정월 대보름날 마을을 동서로 나누어 실시하던 농경의식의 민속놀이. 그 해 농사의 풍년여부를 점치는 의식과 결부되어 온 마을이 합과 화합을 즐기는 대동놀이.

밀어라 밀어라 풍년들게 밀어라!

이차저차 사설하며 흥겹게 꼬아서
운동대 모으면 아름드리 동아줄—
동글게 고만들고 기둥나무 받쳐서
농악대 앞세우고 어깨메고 싸워보자.
우리 동네 우두머리 줄패장 대위놓고
밀어라 밀어라 풍년들게 밀어라.
돌아돌아 돌아 풍년들게 밀어라.
하늘높이 퍼지는 풍물소리 힘을 얻어
멜꾼들 어깨 힘에 줄패장 신이 난다.
이마에 붉은땀방울 맺히고
한마당의 잔치판에 올해도 풍년일세.

우리의 민속놀이는 민중공동체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뜻과 꿈의 결집이 풍년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놀이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놀이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옛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지발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